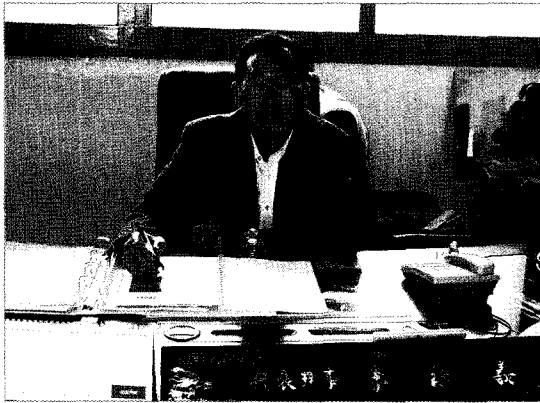




# “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값진 재산은 바로 깨끗한 환경입니다.”

##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(유)오성알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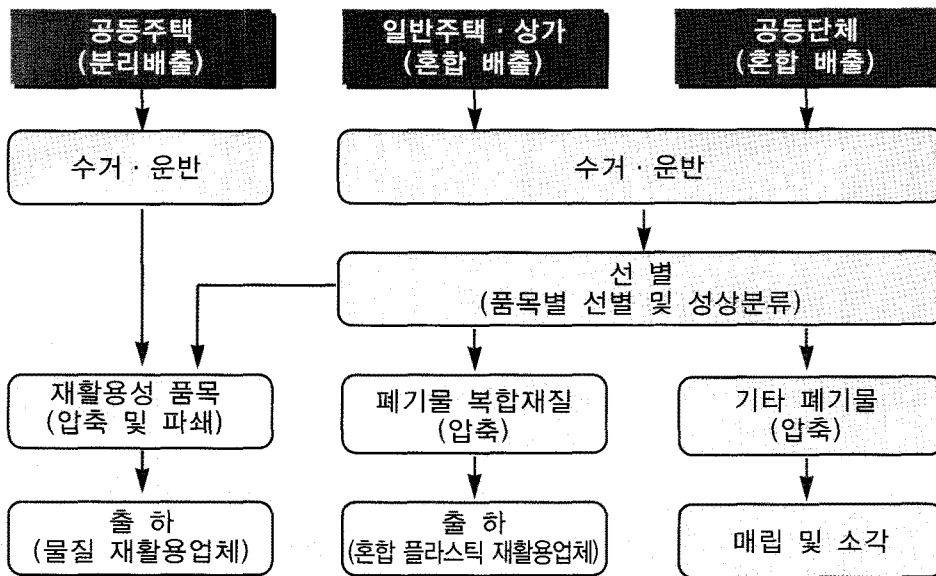
(유)오성알씨 대표이사 이 수 의

1988년 3월 설립된 유한회사 오성알씨(대표이사 이수)는 생활계 및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, 선별하여 재활용까지 하는 One-Stop 방식을 추구하면서, 3년여전부터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필름류포장재도 재활용하여 RPF(고형연료)를 생산, 산업계에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.

1988년부터 20여년 동안 국내 재활용사업을 이끌어온 오성알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 5,129㎡의 부지에 2,914㎡의 제조 및

처리시설을 갖추고 월 4,000톤의 원료를 반입받아 재질별로 선별, 압축, 재활용까지 한번에 처리하고 있다.

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기존의 수선별(사람이 직접선별)하는 과정을 탈피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



<재활용 체계도>

을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, 상대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진정한 자원 재활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특히 지난해부터는 RPF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PVC 제거를 위하여 PVC 광학자동선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RPF 품질을 한단계 높였다.

오성알씨는 각 지역 부녀회 단체 및 관리자, 학생 등의 현장견학 및 재활용 참여와 방법에 대한 설명회 등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주민의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, 내적으로는 재활용성 폐기물의 처리 후 발생하는 매립 및 소각용 잔재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에 이바지함과 동시에,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한 성상 및 소재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극복하고 재활용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고귀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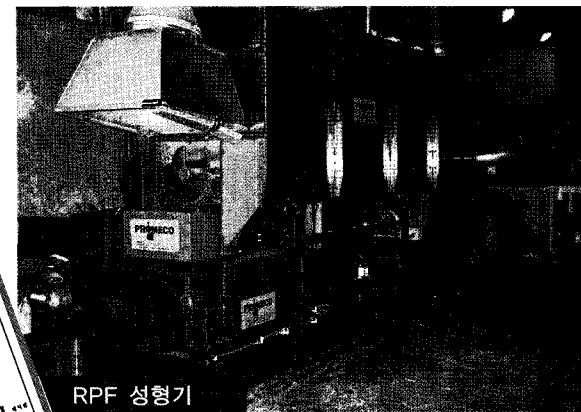
향후 국내 재활용사업의 방향에 대해 이수의 사장은 “현재 대기업에서 재활용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,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영세한 재활용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.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영위해 온 재활용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재활용 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은 억제해야 한다. 다만 대기업의 동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상 바람직하지 않으며,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영역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. 또한 제도권 밖의 무허가 업체에 대한 정리를 통해 재활용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·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”이라고 하였다.



공장 전경



고지 압축기



RPF 성형기

### 회사연혁

- 1988년 03월 “오성자원” 설립
- 1993년 10월 “유한회사 오성자원”으로 법인 전환
- 1999년 01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취득
- 2005년 09월 한국환경자원공사 RPF 품질규격인증 획득
- 2006년 01월 “유한회사 오성알씨”로 법인명 변경  
폐기물중간처리 ISO인증 획득
- 2006년 06월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처리 시스템 및  
처리방법 특허출원
- 2006년 12월 PET천공기 발명특허 획득
- 2008년 03월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처리 시스템 및  
처리방법 특허획득

